

대 중 화 문 고  
중 한 대 역



# 大中华文库

汉韩对照

## 金瓶梅

## 금병매

## VI

大中华文库

汉韩对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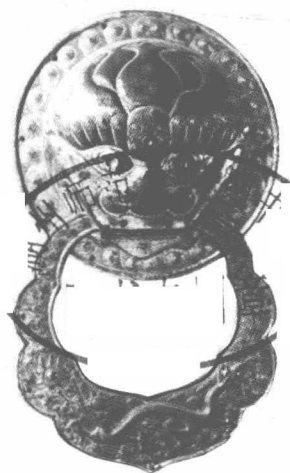
대중화문고

증한대역

# 金瓶梅

## 금병매

VI



(明) 兰陵笑笑生 著

[韩] 赵诚出 译

난능소소생 지음

조성출(한국) 옮김

안의운, 최옥실 교열

外义出版社

외문출판사

**图书在版编目(CIP)数据**

金瓶梅: 汉韩对照 / [明] 兰陵笑笑生著; (韩) 赵诚出译.

—北京: 外文出版社, 2014

(大中华文库)

ISBN 978-7-119-09283-6

I. ①金… II. ①兰… III. ①韩鲜语—汉语—对照读物

②章回小说—中国—明代 IV. ①H559.4:I

中国版本图书馆 CIP 数据核字 (2014) 第287088号

**出版策划:** 胡开敏

**责任编辑:** 杨春燕 刘芳念 曹晓娟

**韩文审校:** 安义运 崔玉实

大中华文库

**金瓶梅**

[明] 兰陵笑笑生 著

(韩) 赵诚出 译

©2015 外文出版社有限责任公司

**出版人:** 徐步

**出版发行:**

外文出版社

(中国北京百万庄大街24号)

— 邮政编码 100037

<http://www.flp.com.cn>

电话: 008610-68320579 (总编室)

008610-68995852 (发行部)

008610-68327750 (版权部)

**制 版:**

北京杰瑞腾达科技发展有限公司

**印 刷:**

深圳市佳信达印务有限公司

**开 本:** 960mm × 640mm 1/16 印张: 182.5

2015年1月第1版第1次印刷

(汉韩)

ISBN 978-7-119-09283-6

(精装)

定价: 540.00元 (全6卷)

---

版权所有 盗版必究

《金瓶梅》写了中国 16 世纪一位暴发户的个人发迹史和家庭生活史。小说的主人公西门庆原本是一个开药材铺子的商人，他通过行贿来勾结官府，然后又倚靠官府包揽词讼，巧夺民财，迅速地积累财富，最后用金钱开道，登上了仕途。另一方面，他在家庭生活和 personal 生活上，又极度豪奢，纵欲无度，和众多的女子有淫乱关系。这使他的身体大大受到了伤害，最后暴病身亡。他原来聚敛的钱财，在他死后迅速地落入了他人之手。他那些漂亮的妻妾也分别有了新的归属。《金瓶梅》的出现，标志着中国古代的长篇小说从内容到形式都走向了成熟。

《금병매》는 중국 16세기 한 벼락부자의 입신 출세 과정과 가정 생활사를 묘사하고 있다. 소설의 주인공 서문경(西門慶)은 원래 약재가게를 경영하는 한 상인이었는데 뇌물을 써서 관청과 결탁하고 또 관청에 의거하여 소송을 독점하고 서민들의 재물을 수탈하여 손쉽게 재산을 긁어모았으며 나중에는 금전으로 길을 열어 벼슬길에 오른다. 한편 그는 가정 생활과 개인 생활에서 극도로 사치하고 육욕을 절제하지 못해 많은 여자들과 음란한 관계를 가진다. 이로 인해 그는 건강을 크게 해치고 마침내 급병에 걸려 죽고 만다. 따라서 그가 그토록 긁어 모은 금전과 재산은 그의 죽음과 아울러 다른 사람의 손에 들어가고 그의 어여쁜 처첩들은 뽀뽀이 남에게 넘어간다. 그가 살았을 때는 신변에 친구들이 많았다. 하지만 그가 일단 죽고 말자 이 친구들은 앞을 다투어 속임수를 써가며 그의 재물을 탈취해간다.

《금병매》의 탄생은 중국 고대의 장편소설이 내용에서 형식에 이르기 까지 모두 성숙되어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 《大中华文库》汉韩对照版书目

## 第一批 (10种)

《周易》	《老子》
《论语》	《孙子兵法》
《孟子》	《庄子》
《水浒传》	《西游记》
《三国演义》	《红楼梦》

## 第二批 (10种)

《诗经》	《荀子》
《楚辞》	《史记选》
《唐诗选》	《唐宋文选》
《西厢记》	《牡丹亭》
《金瓶梅》	《聊斋志异选》

## 第三批 (5种)

《宋词选》	《元曲选》
《天工开物》	《儒林外史》
《老残游记》	

绵延不绝、奔流入海的黄河，哺育了中华各族儿女，是中华民族的母亲河。图为黄河上游的壶口瀑布。

급이급이 동쪽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가는 황하는 중화 민족의 어머니의 젖줄과도 같은 강이다. 그림은 황하 상류의 호구 폭포이다.



国家出版基金项目  
NATIONAL PUBLICATION FOUNDATION

大中华文库

대중화문고

## 目 录

- 第八十二回  
陈敬济弄一得双  
潘金莲热心冷面 2370
- 第八十三回  
秋菊含恨泄幽情  
春梅寄柬谐佳会 2390
- 第八十四回  
吴月娘大闹碧霞宫  
普静师化缘雪涧洞 2408
- 第八十五回  
吴月娘识破奸情  
春梅姐不垂别泪 2426
- 第八十六回  
雪娥唆打陈敬济  
金莲解渴王潮儿 2450
- 第八十七回  
王婆子贪财忘祸  
武都头杀嫂祭兄 2480
- 第八十八回  
陈敬济感旧祭金莲  
庞大姐埋尸托张胜 2502
- 第八十九回  
清明节寡妇上新坟  
永福寺夫人逢故主 2526
- 第九十回  
来旺盗拐孙雪娥  
雪娥受辱守备府 2550
- 第九十一回  
孟玉楼爱嫁李衙内  
李衙内怒打玉簪儿 2574



# 차 례

## 제 82 회

진경제가 한 번에 두 연인을 손에 넣고  
반금련이 일부러 진경제를 외면하다 2371

## 제 83 회

추국이 원한을 품어 비밀을 폭로하고  
춘매가 편지를 전하여 밀회를 거들다 2391

## 제 84 회

오월랑이 벽하궁에서 소란을 피우고  
보정스님이 청풍채에서 탁발을 하다 2409

## 제 85 회

오월랑이 반금련의 간통을 알아채고  
춘매가 달밤에 매파에게 넘겨지다 2427

## 제 86 회

손설아가 진경제를 매맞게 만들고  
반금련이 왕조와 맞붙어 갈증을 풀다 2451

## 제 87 회

왕노파가 재물을 탐하다가 벌을 받고  
무도두가 반금련을 죽여 원수를 갚다 2481

## 제 88 회

진경제가 금련을 못잊어 제사를 지내고  
방춘매가 장승에게 시체를 묻게 부탁하다 2503

## 제 89 회

청명절에 과부가 무덤에 성묘를 하고  
영복사에서 부인이 옛 주인을 만나다 2527

## 제 90 회

내왕이 손설아를 피어 달아나고  
손설아가 수비부에서 수모를 당하다 2551

## 제 91 회

맹옥루가 기꺼이 이공벽에게 시집 가고  
이공벽이 핫김에 옥잠을 마구 매질하다 2575



## 目 录

### 第九十二回

陈敬济被陷严州府  
吴月娘大闹授官厅 2602

### 第九十三回

王杏庵义恤贫儿  
金道士变淫少弟 2630

### 第九十四回

大酒楼刘二撒泼  
洒家店雪娥为娼 2654

### 第九十五回

玳安儿窃玉成婚  
吴典恩负心被辱 2676

### 第九十六回

春梅姐游旧家池馆  
杨光彦作当面豺狼 2700

### 第九十七回

假弟妹暗续鸾胶  
真夫妇明谐花烛 2724

### 第九十八回

陈敬济临清逢旧识  
韩爱姐翠馆遇情郎 2746

### 第九十九回

刘二醉骂王六儿  
张胜窃听陈敬济 2770

### 第一百回

韩爱姐路遇二捣鬼  
普静师幻度孝哥儿 2790



# 차 례

제 92 회	
진경제가 엄주수에서 함정에 빠지고 오월랑이 진경제를 관아에 고소하다	2603
제 93 회	
왕행암이 의롭게 진경제를 구제하고 임도사가 스스로 화를 불러들이다	2631
제 94 회	
유이가 취하여 진경제를 때리고 손설아가 술집에서 창녀가 되다	2655
제 95 회	
대안이 소옥을 훔쳐 장가를 들고 오전은이 배은망덕하여 옥을 보다	2677
제 96 회	
춘매가 옛날에 살던 집 정원을 거닐고 양광언이 거리에서 진경제를 매질하다	2701
제 97 회	
가짜 오누이가 몰래 옛정을 통하고 진짜 부부가 새로 동방화촉을 밝히다	2725
제 98 회	
진경제가 임청에서 선술집을 차리고 한애저가 기루에서 애인을 만나다	2747
제 99 회	
유이가 취하여 왕육아를 욕하고 장승이 양심 품고 진경제를 죽이다	2771
제 100 회	
한애저가 호주로 아버지를 찾아가고 보정 화상이 죽은 자들을 제도하다	2791
주해	2823







## 第八十二回

陈敬济弄一得双 潘金莲热心冷面

词曰：

闻道双衔凤带，不妨单着鲛绡。夜香知为阿谁烧？怅望水沉烟袅。云鬢风前绿卷，玉颜想处红潮。莫交空负可怜宵，月下双湾步俏。

——右调〔西江月〕——

话说潘金莲与陈敬济，自从在厢房里得手之后，两个人尝着甜头儿，日逐白日偷寒，黄昏送暖。或倚肩嘲笑，或并坐调情，掐打揪拈，通无忌惮。或有人跟前不得说话，将心事写了，搓成纸条儿，丢在地下，你有话传与我，我有话传与你。

一日，四月天气，潘金莲将自己袖的一方银丝汗巾儿，裹着一个纱香袋儿，里面装一缕头发并些松柏儿，封的停当，要与敬济。不想敬济不在厢房内，遂打窗眼内投进去。后敬济进房，看见弥封甚厚，打开却是汗巾香袋儿，纸上写一词，名《寄生草》：

将奴这银丝帕并香囊寄与他。当初结下青丝发。松柏儿要你常牵挂，泪珠儿滴写相思话。夜深灯照的奴影儿孤，休负了夜深潜等茶蘼架。

敬济见词上约他在茶蘼架下等候，私会佳期。随即封了一柄湘妃竹金扇儿，亦写一词在上回答他，袖入花园去。不想月娘正



## 제 82 회 진경제가 한 번에 두 연인을 손에 넣고 반금련이 일부러 진경제를 외면하다

(머리시 삭제)

반금련과 진경제는, 서문경의 상중(喪中)에 상방에서 밀통을 한 이후로는 서로 연연한 정에 사로잡혀 날마다 낮이나 밤이나 기회 있을 때마다 시덕거리 대었다. 보는 눈이 있어서 부득이할 때는 서로 간절한 생각을 종이에 적어 주고받곤 했다.

4월의 어느 날이었다. 반금련은 몸에 지니고 다니던 은실 손수건에 옥색 비단 향(香)주머니를 썼다. 향주머니 속에는 향긋한 때짚레 꽃잎과 머리털·송백(松柏)이 들어 있었는데, 이것은 ‘송백장청 인여화면(松柏長靑人如花面)’을 뜻하는 것이다. 금련은 이것을 진경제에게 전하려고 상방으로 나갔으나 마침 진경제가 출타 중이어서 만나지 못하고, 그것을 창을 열고 방안에 집어던져 놓았다.

진경제는 나중에야 이것을 발견하고 얼른 끌러 보았다. 우선 《기생초(寄生草)》의 노래를 적은 종이 쪽지를 살펴본다.

은실 손수건에 향주머니를 써서  
당신에게 전합니다.  
주머니 속의 검은 머리털과 송백은  
당신을 잊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눈물로 얼룩지는 연연한 사연  
깊은 밤 등불에 비치는  
쓸쓸한 내 모습을 아시나요.  
도미꽃 울타리 아래서 기다리겠어요.  
꼭 오세요. 네.

도미 울타리 아래서 기다린다는 사연을 읽고 진경제는 곧 반죽(斑竹) 부채를 펼쳐 회답의 노래 가사(歌詞)를 적어 부채를 소맷자락에 넣고 뜰로



在金莲房中坐着，这敬济三不知，走进角门就叫：“可意人在家不在？”这金莲听见是他语音，恐怕月娘听见决撒了，连忙掀帘子走出来。看着他，摆手儿，佯说：“我道是谁，原来是陈姐夫来寻大姐。大姐刚才在这里，和他每往花园亭子上摘花儿去了。”这敬济见有月娘在房里，就把物事暗暗递与妇人袖了，他就出去了。月娘便问：“陈姐夫来做甚么？”金莲道：“他来寻大姐，我回他往花园中去了。”以此瞒过月娘。

少顷，月娘起身回后边去了。金莲向袖中取出拆开，却是湘妃竹金扇儿一把，上画一种青蒲，半溪流水，写着一首词儿：

紫竹白纱甚逍遥，绿青蒲巧制成，金锭银钱十分妙。  
妙人儿堪用着，遮炎天少把风招。有人处常常袖着，无人处慢慢轻摇，休教那俗人儿偷了。

妇人看了其词，到于晚夕月上时，早把春梅、秋菊两个丫头打发些酒与他吃，关在那边炕屋睡。然后自在房中，绿窗半启，绛烛高烧，收拾床铺衾枕，薰香澡牝，独立木香棚下，专等敬济来赴佳期。西门大姐那夜恰好被月娘请去后边，听王姑子宣卷去了，止有元宵儿在屋里。敬济梯己与了他一方手帕，分付



나갔다. 그런데 이때 공교롭게도 오월랑이 반금련의 방에 와 있었다. 진경체는 그런 줄도 모르고 쪽문을 들어서면서,

“내 임이 계시는지요?”

하고 큰소리로 외쳤다. 방안에서 금련은 재빨리 이 소리를 알아듣고 다급히 밖으로 나와 일부러 손을 저으며,

“진서방이군. 진실이를 찾소? 조금 전까지 여기 있다가 뜰에 꽃을 꺾으러 갔는데…….”

진경체는 오월랑이 방에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 부채를 슬쩍 금련의 소매 자락에 넣어 주고 그대로 되돌아갔다.

“진서방이 여길 밋하러 왔어?”

오월랑의 물음에 금련은,

“진실이를 찾으러 왔더군요.”

하고, 용케 둘러대었다. 이윽고 오월랑이 안으로 돌아가자 금련은 얼른 소매자락에서 부채를 꺼내 보았다. 흰 비단 반죽선(斑竹扇)에 개여울의 그림이 그려져 있고 《수선자(水仙子)》의 노래 한 수가 써어져 있다.

자줏빛 살에 흰 비단

자못 풍아(風雅)한 부채외다.

푸른 여울이 시원하고

금은(金銀)의 쇠붙이가 절묘합니다.

절묘한 사람이 사용하여

띠약별을 가려 주고

바람을 일으킵니다.

부디 남의 앞에서는 감추고

몰래 쓰면서

속인(俗人)에게 빼앗기지 않으시도록.

해가 지고 달이 뜰 무렵이 되자 금련은 춘매와 추국에게 술을 먹여 먼저 자게 한 뒤, 자기는 등불을 밝히고 푸른 창을 반쯤 열어 놓은 채 오이풀 시렁 아래 서서 사나를 기다렸다. 이미 침상에는 원앙 금침 이부자리가 퍼져 있었고 향이 타오르는데, 계집은 이미 밑까지 깨끗이 씻은 뒤였다.

이날 밤 진경체의 아내는 오월랑의 방에 불려 가서 왕비구니의 설경(說經)을 듣고 있어서 방에는 하녀 원소 혼자만이 남아 있었다. 진경체는 원소에게 몰래 손수건 한 장을 주며,



他：“看守房中，我往你五娘那边下棋去。等大姑娘进来，你快来叫我。”元宵儿应诺了。敬济得手，走来花园中，只见花依月影，参差掩映。走到茶蘼架下，远远望见妇人摘去冠儿，乱挽乌云，悄悄在木香棚下独立。这敬济猛然从茶蘼架下突出，双手把妇人抱住。把妇人唬了一跳，说：“呸！小短命！猛可钻出来，唬了我一跳。早是我，你搂便将就罢了。若是别人，你也恁胆大搂起来？”敬济吃得半酣儿，笑道：“早是搂了你，就错搂了红娘，也是没奈何。”两个于是相搂相抱，携手进入房中。房中荧煌煌掌着灯烛，桌上设着酒馔，一面顶了角门，并肩而坐饮酒。妇人便问：“你来，大姐在那里？”敬济道：“大姐后边听宣卷去了。我分付下元宵儿，有事来这里叫，我只说在这里下棋。”说毕，两个欢笑做一处。饮酒多时，常言“风流茶说合，酒是色媒人”。不觉竹叶穿心，桃花上脸，一个嘴儿相亲，一个腮儿厮搵，罩了灯，上床交接。有《六娘子》小词为证：

入门来，将奴搂抱在怀。奴把锦被儿伸开，俏冤家  
顽的十分怪。嗟，将奴脚儿抬，脚儿抬，揉乱了乌云，鬢  
髻儿歪。



“난 다섯째마님 방에 장기를 두러 가는데, 아씨가 돌아오거든 곧 기별해다오.”

하고는 뜰로 나왔다. 도미 울타리 아래까지 와서 금련의 방 쪽을 바라보니, 마침 금련이 머리에는 아무런 장식물도 꽂지 않고 연뿌리색 저고리에 다 무늬가 든 남치마를 입고 오이풀 시렁 아래서 걸어오는 참이었다.

진경계는 갑자기 도미 울타리에서 달려나가 두 팔로 계집을 와락 부둥켜안았다.

계집은 깜짝 놀라며 종알거린다.

“애고머니, 깜짝 놀랐네. 나니까 이런 짓을 당해도 가만 있지 딴사람이면 어떡할 뻔했지? 정말 능청맞다니까.”

진경계는 이미 술이 거나했는지라 히죽거렸다.

“내 임인 줄 다 알고 그랬답니다. 실수를 해서 홍랑(紅娘)을 끌어안았으면 하는 수 없죠, 뭐.”

두 사람은 서로 찰싹 달라붙어서 손에 손을 꼭 쥐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식탁에는 이미 술과 음식이 마련되어 있었다. 쪽문에 빗장을 지르고 두 사람은 찰싹 달라붙어 앉아서 술잔을 들었다.

반금련이 묻는다.

“당신이 나온 것을 안에서는 모르겠지?”

“안사람은 설경을 들으러 들어갔습니다. 원소에게 그이가 돌아오면 기별하라 일러 냈는데, 여기서 장기를 둔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둘은 술잔을 기울였다.

속담에 ‘차는 풍류를 조성하고, 술은 색정(色情)을 매개한다’는 말이 있듯이, 점차 술기운이 돌아 가슴이 달아오르고 얼굴이 불그레해지니, 하나는 입을 맞추고 하나는 볼을 비비기 시작하다가 기어이 등불을 가리고 침상에 오르고 말았다.

계집이 사내를 꼭 끌어안으니 사내 또한 계집을 얼싸안는다. 계집이 《육랑자(六娘子)》의 곡으로,

방에 드실 때 나를 안고 드시고

내가 자리를 까니

그만 장난을 하시네요.

내 발을 둘러메고 서둘러 대시니

보세요, 머리와 다리가 다 헝클어졌잖아요.